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동향



CONTENT

요 약 / 3

I. 경기불황기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 / 4

- | | |
|---|-------------------|
| 4 | 1. 2012년 상반기 통상환경 |
| 5 |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트렌드 |
| 9 | 3. 전망 및 시사점 |

II.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사례 / 12

- | | |
|----|----------------|
| 12 | 1. 중화권 |
| 16 | 2. 유럽 |
| 20 | 3. 북미 |
| 25 | 4. 중남미 |
| 33 | 5. 아시아·대양주 |
| 38 | 6. 중동·아프리카·CIS |

요약

□ 세계경기 불황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 세계경기 회복 부진으로 '12년 상반기까지 세계무역 규모는 18조1890억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불과 1.7% 증가함.
- WTO는 지난 4월 올해 무역증가율을 3.7%로 예상했으나 상반기 증가율은 기대치의 절반 수준으로 그쳤고 하반기 주요 국가들의 교역환경 개선 여지도 불투명함.
-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더블적자 상황에 직면해 하반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코트라 주요 수출시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 긴급 점검

- 코트라는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유럽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소재한 66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8월말 기준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긴급 점검함.
- 총 26개의 무역관에서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관세 인상, 수입절차 강화, 반덤핑혐의 조사개시 등 44개의 신규 또는 기존조치의 강화 보호무역조치가 확인됨.

□ 경기불황기 보호무역주의 유형 다양화

- 상반기 20여 건의 신규 반덤핑조사개시 및 기존 반덤핑관세 연장 등 20여건의 수입규제조치에 더불어 자국산 사용의무화, 외환규제, 수입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음.
- WTO 출범과 FTA 확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낮아진 수입관세가 일시적이거나 신흥시장국가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2차전지 등 선진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담합조사, 반독점법 위반조사에 근거해 불공정거래 사례로 피소돼 해당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견제 받고 있음.

I. 경기 불황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

1. 2012년 상반기 통상환경

□ 세계 경제 동향

- 그리스 재정위기 불확실성, 스페인 은행 부실 등으로 유로지역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
 - * EU 경제성장률 추이(IMF, %) : '10년) 2.0 → '11년) 1.6 → '12년) 0.0 → '13년) 1.0
- 소비심리 저하,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유럽시장 수요 감소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
- 중국도 유럽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수출, 소비, 투자, 생산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상반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2분기 예상에 밀도는 1.5% 경제성장에 머물렀으며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경제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세계 무역 동향

- 세계경기 회복 부진으로 '12년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규모는 18조1890억 달러로 '11년 같은 기간 17조8790억 달러대비 불과 1.7% 증가함.
- '12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규모도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5397억 달러에 그쳤으나 경쟁국의 부진으로 무역규모 순위는 오히려 '11년 9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
- '12년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무선통신, 선박류, 가전 등 주력 수출품의 큰 수출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2752억 달러)에 그쳤음.
- WTO는 지난 4월 올해 무역증가율을 3.7%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상반기까지 증가율은 기대치의 절반 수준으로 그쳤고 주요 국가들의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하반기 우리 수출의 회복도 우려스러운 상황임.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트렌드

□ 상반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점검

-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상반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가 '11년 하반기 총 36건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비 '12년 상반기에는 69건의 추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함.
- 이에, 코트라는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소재한 66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8월말 기준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긴급 점검

※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긴급점검

- 참여무역관 : 총 66개

* 중국권 : 중국, 홍콩, 대만

* 유럽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뤼셀 등

* 북미 : 미국, 캐나다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아시아·대양주 :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

* 중동·아프리카·CIS :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 이란, 남아공, 러시아 등

- 점검내용 : 상반기 중 경기불황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 목적의 보호무역조치 중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

- 총 66개 무역관 중 24개 무역관에서 44개의 보호무역조치가 파악됨.
- 신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비공식 논의 단계도 포함), 수입관세 인상 및 차별적 특별세 도입, 수입절차 강화,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의 다양한 보호무역조치가 개시됨.
- 북미, 유럽시장의 선진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지재권·반독점법·기술표준 등 내국법을 활용, 해외경쟁기업 경쟁력 약화 도모
- 브라질, 베트남, 멕시코 등 개도국은 수량제한, 절차강화, 수입관세 인상 등 즉각적인 수입규제가 가능한 조치들을 활용하고 있음.

□ 유형별 보호무역주의 동향

○ 수입관세 및 수입품에 차별적인 특별세 증가

-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등에서 무관세이거나 저관세가 적용되던 제품에 수입관세 또는 차별적 내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멕시코 정부가 무관세를 적용했던 286개의 철강제품에 8월 1일부터 3%의 관세를 재적용하기 시작함.
- 9월 1일부로 러시아는 수입 차량 폐차처리 비용을 화물차의 경우 최대 1만3000여 달러까지 사용세(Utilization Fee)의 형태로 부과하기 시작함.

○ 수입절차 강화

- 개도국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관통관 강화, 사전수입 신고제, 수입품목제한 등 수입절차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주로 사용함.
- 베트남은 9월 20일부로 모든 수입철강제품을 사전에 산업무역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거래를 규제함으로 수입상들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전 중앙은행이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불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국산 사용의무화

- 각 국가에서 공공프로젝트 발주 시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제안평가 시 자국기업과의 협력수준을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자국산 제품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오만에서는 하반기부터 오만석유개발사와 오만정유석유산업사 등 석유 가스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등을 도입해 프로젝트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발동 증가

- 신규 또는 기존 수입규제 조치 연장 등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조사대상 국가 중 8월 말 기준 상반기 신규 조사 또는 확정된 수입규제조치가 18여 건이 있고, 기존 반덤핑관세가 연장된 사례도 3건 존재
- 한편, 인도의 대 한국산 페놀 반덤핑관세처럼 이미 반덤핑관세 폐지가 결정된 사례도 집행처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여전히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함.

○ 경쟁국 기업 경쟁력 약화 조치

- 선진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가격담합조사, 반독점법 위반조사에 근거해 불공정거래사례로 피소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약화로 귀결되고 있기도 함.
- 세계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2차전지(Lithium Battery) 제품에 대해 미법무성은 일본기업들과 삼성 SDI와 LG화학을 대상으로 가격담합(Price fixing) 여부를 조사 중임.
- 한편 '12년 상반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선진국 국적 기업들로부터 특허 등 지재권 침해로 우리 기업이 피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지재권 침해 피제소 사례는 대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특허사냥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11년 P사를 대상으로 DRAM 특허 무단사용건으로 소송을 제기해 P사가 거액의 라이선싱 대금을 지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주요 한국기업 피소 지적권 분쟁 사례>

제소기업국적	내용
독일	세계 2위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의 LED 특허침해 소송에 A전자는 '12년 7월 미국에서 패소
러시아	'11년 8월 Simbrisk-Kron사가 당사의 가전제품 및 식기브랜드인 갤럭시 브랜드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법원에서 기각됨
미국	한국 K사와 미국기업 듀폰사의 신소재섬유 '아라미드(Aramid)'에 관해 생산기술 및 영업비밀권에 관한 소송 진행, K사 1차 패소, 항소 중
	유명 골프브랜드인 Greg Norman사는 '12년 6월 뉴욕무역관에 자사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골프용품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함. 현재 법정소송 계획 중으로 파악됨.
	인식솔류션 국내업체인 P사는 2년여에 걸쳐 미국 지문인식업체 크로스매치사와 특허권 분쟁 후 '11년 부분 승소함
	미국의 특허 전문업체 IV(인텔렉추얼벤처스)의 한국 T사 DRAM 특허 무단사용 소송제기 '11년 거액의 라이선스 체결
싱가포르	코스닥 상장 위조지폐 감별기 수출업체 B사는 미국 내 경쟁업체인 커민스엘리슨으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함
	일본의 모리나가제과가 한국 C제과가 자사 제품의 상표를 도용했다고 싱가포르 등록기관에 이의제기
영국	Dyson사의 날개없는 선풍기 유사제품 제조사 특허침해 소송. '12년 다이슨사가 소송 모두 승소
이스라엘	캡슐형 내시경 개발업체인 기븐이미징사 한국의 M사 대상 2건 특허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제기
일본	국내 코스닥 상장업체인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업체, N사 올해 일본 히타치화성으로부터 대만법원에서 특허침해 제소 당해
	철강분야의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중국진출에 나섰다가 일본 경쟁 업체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함
	일본 니치아사는 한국 S사가 자사의 '백색LED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국내, 독일, 미국 등에서 진행했고 '09년 특허 공유계약 체결
	신일본제철, 포스코 대상 전기강판생산관련 기술침해 특허소송 '12년 4월 미국 법원에 제기
캐나다	특허전문 관리업체 모사이드, 2001년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를 상대로 DRAM제조 관련 7개 특허 침해 소송. 삼성전자가 사용료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 마무리

3. 전망 및 시사점

□ 하반기 경기 여전히 불투명

- 미국경기 선행지수가 7월 들어 소폭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 경기회복 신호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중국 유로지역 등의 지표들은 여전히 하반기 상황도 쉽지 않음을 반증함.
-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세계경기를 지탱해왔던 한축인 브릭스국가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더블적자에 빠지면서 단시간내 글로벌 경기와 교역 회복이 용이하지 않게 됨.

□ 보호무역주의 확대 요인 상존

-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는 브릭스를 위시한 신흥시장을 위주로 하반기에는 보호무역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특별히 최근에는 반덤핑 등 전통적 수입규제조치에 더불어 경제 국수주의 등 보호무역조치가 다양화되고 있음.
- WTO의 출범과 FTA의 확산에 따라 지속 하락해 현재 공산품 기준 평균 5.1%를 유지하는 수입관세도 일시적이거나 신흥시장 위주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기업이 불공정행위 및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하반기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국내기업도 해외진출 확대, 해외현지 마케팅 및 경영활동 강화 등으로 경영체질을 개선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유형별 경기불황기 신규 보호무역조치>

보호무역조치	국가	내용
관세인상/ 차별적특별세	러시아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올인원컴퓨터 등 관세인상 논의 중
		9월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비용을 사용세로 징수
	브라질	8월부터 컴퓨터 핵심부품 관세인상 2015년까지 적용
		4월 종료예정 수입자동차 대상 공업세 인상분 (30%) 5년간 추가 연장
		9월 26일부로 종이, 가죽, 유리 등 100개 품목 수입관세 인상
	멕시코	8월 1일부터 286개 철강 품목에 대한 3% 관세 재적용
	베트남	6월 11일부터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 수입관세 10% 부과
수입절차강화	요르단	7월 1일부터 수입가능 중고자동차 연식 5년 이내로 제한
	이란	7월말부터 우선 수입품목군 1-2등급 품목군만 수입 L/C 개설 허용
	카타르	'11년 4월부터 통관 시 제출서류 원본 요구
	아르헨티나	1월 10일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제도 도입
		'11년 4월 시행된 수입허가제에 200개 품목이 증가돼 총 584개로 대부분의 수입품이 해당
		'11년 3월 수입업체들에게 수입규모만큼 수출토록 요청. 수입허가제 584개 품목 해당
	베트남	9월 20일부터 철강수입업자는 취급제품 산업무역부에 등록 필수
자국산 사용의무화	오만	하반기 자국산 활용도(Made in Oman Index) 석유개발프로젝트 입찰심사 시 반영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전력청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발주에 국내기업과의 협력 수준 평가기준으로 도입
	이탈리아	'11년 6월 1일부터 태양광모듈 설치 시 EU역내 생산 부품 사용 시 Buy European 보조금 지원
	프랑스	7월 27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지원과 업체 선정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기업에 유리하게 변경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EU	8월 3일 프랑스 EU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 모니터링 요청, EU집행위원회 대변인 검토 중임을 밝힘.
		6월 26일 한국산 강철로프에 대한 덤핑협의를 조사 착수
	대만	'11년 7월 대만 제지협회 한국·중국·일본·핀란드산 코팅지에 반덤핑 제소. 올 하반기 최종 결정 예정
		7월 16일 대만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 YUSCO와 TANG ENG 한국포함 4개국 제품에 반덤핑 제소 신청서 제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미국	8월 23일 한국산 변압기(용량 60,000KV 이상 유압식) 반덤핑관세 부과
		5월, 7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상계관세 및 반덤핑 예비판정
	브라질	현재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 사 대상 덤핑혐의 조사
	아르헨티나	4월 23일 플로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개시
	인도	3월 한국산 폐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폐지를 결정했으나 미시행
		2월 10일 PVC 서스펜션에 대한 반덤핑 과세 유지
		5월 무스프탈산 2차 반덤핑조사 결과 확정
	중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추가 반덤핑세율 인상을 위한 반덤핑 조사 진행 개시
		7월 20일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개시
		6월 27일 ECH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5년 연장 결정
		6월 23일 비스페놀 A 한국 등 4개국 대상 일몰재심 실시
	캐나다	7월 23일 한국산 발전기용량(60,000KV 이상 유압식) 반덤핑 예비판정
		8월 13일 한국 포함 7개국 탄소 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잠정 관세 부과
	터키	5월 16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반덤핑 관세 연장 확정
		상반기 성냥, PET 등 2개 품목 세이프가드 품목에 추가
	파키스탄	2월 한국산 Formic Acid에 대해 44.1% 덤핑관세 부과 확정
	호주	6월 28일 한국산 pvc수지에 대한 잠점관세 5.4% 부과
		6월 15일 한국·일본·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식품안전규제	홍콩	8월 8일부터 한국산 분유의 요오드 함량 부족을 이유로 소비자에 섭취 중단 권고
반독점법위반	EU	1월 31일부터 삼성전자를 FRAND위반혐의로 조사 중. 독점지위남용으로 결론 확정 시 판매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능
가격담합조사	미국	2차전지 제품 가격담합 여부 조사 중
외환규제	아르헨티나	2012년부터 TT 거래 규제. 현지 바이어가 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송금 가능.

II.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사례

중화권

□ 중국, 한국과 미국의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개시

○ 개요

- 상무부는 '12년 7월 20일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폴리실리콘(HS코드: 28046190)의 반덤핑 및 보조금 지원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한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만 진행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보조금 지원 조사 실시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은 총 6만4614톤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했으며, 미국(1만7476톤, 27.2%), 한국(2만1361톤, 33.1%)에서의 수입이 전체의 60%를 차지함.
- '12년 1-7월 미국으로부터 수입량(1만9941톤)은 전체 수입량(4만8070톤)의 41.5%, 한국(1만2300톤)은 25.6%를 차지함.
-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로 중국의 태양광발전(PV) 산업을 구제하고 한국과 미국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ECH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개요

- 상무부 '12년 6월 27일 에필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HS코드 29103000)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중국은 '06년 6월 28일부터 5년 동안 미국, 한국, 일본 및 러시아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ECH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음.

- '11년 6월 28일 일몰재심에 착수했고 '12년 6월 28일 반덤핑관세 조치가 종결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이로 인해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의 관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기타 한국기업은 71.5%의 세율이 적용됨.
-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국으로부터의 ECH 수입량은 3208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1.7%를 차지하며 대만,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중국, 한국산 광섬유 추가 반덤핑 조사 개시

○ 개요

- 중국 상무부는 현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 LS전선주식회사와 옵토매직사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추가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중국 정부는 '05년 1월부터 5년간 한국산 광섬유(옵토매직 2.3%, LS 전선 7%, 기타 한국기업 46%)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11년 1월 1일 일몰재심을 거쳐 관세부과를 5년 연장기로 결정한 바 있음.
- '12년 1월 5일 창페이(長飛)광섬유유한공사, 푸통(富通)그룹유한공사 등 7개 중국 업체가 LS전선과 옵토매직사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1년 한국산 광섬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29.5% 증가한 375.8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0.2%를 차지하며 인도,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중국, 비스페놀A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개시

○ 개요

- 중국은 '07년 8월 30일부터 5년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스페놀 A(Bisphenol-A, HS코드 29072300)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음.
- '12년 6월 13일 로컬기업 Bluestar New Chemical Materials Co. Ltd 와 Shanghai Sinopec Mitsui Chemicals, Co., Ltd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시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상무부에 일몰재심 심사를 신청함.
- 상무부는 일몰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12년 8월 30일부터 '13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일몰재심을 실시기로 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몰재심 기간에 기존 반덤핑 세율이 계속 적용됨.
 - * 금호P&B 5.8%, LG석유화학 4.7%(최초 판정시 6.4%였으나 '09년 12월 15일부터 4.7%로 인하), 기타 한국기업 37.1%
- 일몰재심 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

○ 개요

- 대만 1, 2위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YUSCO(燐聯)와 TANG ENG(唐榮)이 '12년 7월 16일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에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제품(300계와 400계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제출함.

-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에서 우선 검토 후 반덤핑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결정될 경우 이를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에 송부해 피해 유무를 조사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1년 대만 최대 철강회사인 CSC(中鋼)의 한국산 후판 및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이어 잇따른 대만 철강업계의 제소는 최근 실적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만, 한국산 코트지 반덤핑 제소

○ 개요

- '11년 7월 대만제지협회가 대만 재정부에 한국·중국·일본·핀란드산 코팅지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12년 7월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
-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 셰링웬(謝鈴媛) 부사장(副司長)에 따르면 수입 코트지 반덤핑안은 이르면 금년 11월 중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대만 재정부의 수입산 코트지 덤핑률 예비조사 결과 우리나라 무림, 한솔, Apex 등의 덤핑률은 12.5~15.2%로 조사되었으나 잠정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음.
- 대만의 잡지 인쇄업체 등이 수입산 코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0% 이상의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됨.

유럽지역

□ 헝가리,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 수주가 유리해짐

○ 개요

-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함.
 - *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제외됨.
- 또한, 공공조달 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해짐.
 - * 일반제품 : 2500만 포린트(약 11만 달러) 이하
 - * 건설 : 1억5000만 포린트(약 66만 달러) 이하
 - * 서비스 : 2500만 포린트(약 11만 달러) 이하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 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음.
- 헝가리는 현재 내수가 침체되어 있으나 공공 개발분야는 EU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진출 가능성이 큰 시장중 하나

□ 이탈리아, 태양광 산업 Buy European 인센티브

○ 개요

- 이탈리아 태양광산업은 최근 4, 5년 사이 급격한 성장을 통해 현재 독일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짐.
- 지난 '1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태양광 발전보조금 4차 개정을 통해 EU 내에서 생산된 부품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

- 태양광 모듈 설치 시 부품의 60% 이상이 이탈리아 또는 EU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2013년까지 20유로/MWH, 2014년까지 10유로/MWH, 2015년까지 5유로/MWH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음.

○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 '12년 상반기 對이탈리아 한국 기업의 태양광 모듈 수출은 전년대비 85.22% 감소했으며, 이러한 수출 부진 원인은 4차, 5차 FIT 개정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수요 감소, 그리고 Made in EU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이탈리아 태양광산업은 재정고갈로 인한 점진적인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보조금 감축으로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EU산(이탈리아산 포함) 제품에 대한 추가인센티브로 인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
-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업체는 유럽 현지 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현지 생산으로 활로개척 모색 중
 - * 한화 그룹은 2008년 셀 생산능력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었던 독일 Q-Cell社를 지난 8월 26일 인수하여 세계 3위의 생산 업체로 발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EU 내에서의 태양광 부품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유럽과 이탈리아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프랑스,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에 대한 인증 기술장벽 강화

○ 개요

- 지난 7월 27일 프랑스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일시 중단했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재개하면서 발전차액지원(FIT) 및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음.
- 강화된 기준에 따라 프랑스 태양광 발전 프로모터들은 프랑스 공립 건축학술 및 기술센터(CSTB: 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거래하기를 선호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의 Q사는 한국 A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었으나 건물일체형 PV모듈 관련 인증서(ATec)나 혁신패스(Pass'Innovation)가 없어서 결국 EU산 인증제품을 구매함.
- 우리 중소기업은 경제적·시간적 부담 때문에 인증서 획득이 쉽지 않아 프랑스 건물일체형 PV모듈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프랑스 프로모터들 사이에서 인증을 미 획득한 한국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상담 기회조차 상실할 수도 있어 대 프랑스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크로아티아, 발전소 발주에 자국기업과 협력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 개요

- 크로아티아 전력청은 플로민 C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주요 평가기준으로 기술, 금융상의 조건 이외에 크로아티아 국내업체와의 협력 수준을 삽입
- 발전소 건설 관련 진행사항 : 9월 현재 전략적 파트너 선정작업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제안서 접수, '13년 1분기 말 전략적 파트너 선정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크로아티아 정부는 로컬 소싱의 의무화가 국제조달규범(WTO 정부조달 협정)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국내업체와의 협력수준을 평가기준 내에 삽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로컬 소싱을 의무화하는 효과를 창출
- 동 발전소 건설에는 우리나라 남동발전(비공개)을 비롯한 컨소시엄(삼영기업 등)이 입찰참여를 준비 중으로 상기 조항으로 인해 한국산 전력 기자재 제조업체의 크로아티아 시장진출이 일정한 장벽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

□ EU, 프랑스 요청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 모니터링 고려

○ 개요

- 프랑스는 8월 3일 EU 집행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8월 27일 카트린 레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모니터링 요구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EU가 프랑스의 모니터링 요구를 받아들일 시, 현지 수입업자들은 한국차 수입 계획을 사전 보고한 후 수입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됨.
- 게다가 동 모니터링 결과는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할 때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에 근거가 될 수 있음. 세이프가드 발동 시, EU는 수입 관세를 FTA 이전 세율로 다시 높여 적용함.

□ EU, 삼성 FRAND 독점혐의 조사 현황

○ 개요

- (독점혐의) EU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삼성전자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유럽통신표준연구소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 위반혐의로 현재까지 조사 중임.
- '98년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기술이 국제표준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기술에 대한 FRAND 의무를 지게 됨.
- 애플사의 라이선싱 협의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사에 타사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차별적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애플로부터 FRAND 위반혐의로 제소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향후 독점지위 남용이 공식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판매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북미지역

□ 미국,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2012.8.23)

○ 개요

- 지난 7월 3일 상무부로부터 덤핑혐의 최종판정을 받은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해 미 무역위가 8월 9일 최종적으로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의한 미 관련 산업 피해 있는 것으로 판정
- 한국 업체들의 현금납부 의무는 덤핑행정명령이 최종확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덤핑마진을 적용될 예정
- 품목명 : 용량 60,000KV 이상의 유압식 대형 변압기(HS코드 8504.23.0040/0080)
- 관세율 : 29.04%(효성), 14.95%(현대중공업), 22.00%(기타 한국업체)

○ 우리기업 피해 발생 사례

- 예비판정 당시(2012.2.9)의 관세율에 비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평균 22%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 불가피
* 피해업체 : 효성, 현대중공업, 기타 대미 변압기 수출업체
- 이에 따라 해당 한국 업체들은 상무부 예비판정결과가 고시된 2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수입·유통된 제품에 대해 덤핑마진을 상당의 현금을 관세청(CBP)에 이미 지불한 바 있음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동 제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2011년 수출액 3억2100만 달러) 중 하나로 반덤핑관세 부과로 수출물량 크게 감소할 전망
- 동 제품의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3% 감소한 1억3800만 달러

□ 미국, 한국·멕시코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

*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덤핑 혐의만 적용, 한국산제품은 덤핑 및 보조금 혐의 모두 적용

○ 개요

- 품목명 : 대형 가정용 세탁기(HS코드 8450.11류, 8450.20류, 8450.90류)
- 관세율 : 반덤핑 예비판정일은 2012.7월, 상계관세 예비판정일은 2012.5월

관세율	대우	LG	삼성	기타
반덤핑(%)	82.41	12.15	9.62	11.36
상계관세(%)	70.58	0.22	1.20	1.20

주 : 삼성의 멕시코 공장에서 수출되는 세탁기에 대해 부과되는 잠정관세율은 72.41%

○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사례

- 국내기업은 최고 82%의 반덤핑 관세뿐 아니라 상계관세(최고 70%)까지 납부하고 있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크게 저하
- 이와 함께, 한국산제품의 경우 멕시코산과는 달리 잠정 관세를 모두 현금예치(Cash Deposit)¹⁾ 형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세탁기는 2011년 기준 對美 수출액이 약 5억68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올해 1~6월 중 동 제품의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

1) 美 상무부는 그동안 잠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현금예치(Cash Deposit), 은행의 지급보증(Bond), 기타 지급보증(Other security) 중 수입업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현금부담이 적고 편리한 은행의 지급보증 방식을 이용해 왔으나, 2011.10.3일 관련규정 개정(76 FR 61042)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예치 형태로 잠정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 미국, 가격담합 조사

○ 개요

- 美 법무부는 현재 삼성 SDI, LG화학, Sony, Panasonic 등을 대상으로 2차전지(Lithium Battery) 제품의 가격담합(Price fixing)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²⁾
- Sony에 따르면, 작년 5월에 美 법무부로부터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함.
- 국내 관련업체도 美 법무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자료제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자료요구는 면담요청은 없었다고 언급

○ 우리기업 피해 발생 사례

- 현재 조사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 국내업체의 피해는 없으나 가격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가격담합에 따른 부당이익의 2배 또는 소비자 손실액의 최대 2배를 벌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7월에 LG 디스플레이는 대만(AOU) 및 일본(도시바) 업체가 가격담합에 대한 합의금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3억8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음.(상기 3사의 합의금 지급총액은 5억7000만 달러)
-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차전지 시장규모는 LCD 시장규모의 1/6 정도에 불과해 가격담합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징금 납부액은 LG 디스플레이 사례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

○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 가격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국내 2차전지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 큰 타격은 없을 전망
- 삼성 SDI는 2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이며 LG화학도 3위 업체로서 현재 양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3%

2) 동 사항은 국내 및 미국 현지 언론(WSJ)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현재 美 법무성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파악 불가

□ 캐나다, 한국산 60MVAs 이상 유입식 변압기에 잠정관세 부과

○ 개요

- 캐나다 관세청은 예비판정을 통해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60MVAs (Megavolt Amperes)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에 각각 16.9%, 17.4%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한국 업체 제품에는 72.7%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2012. 7. 23)

○ 우리 기업 피해 사례

- 효성, 현대중공업 외 한국 수출품은 60MVAs 미만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업체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0월 22일 예정된 최종판정에서 무역재판소의 조사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덤핑이 확정 판결될 경우, 반덤핑관세는 5년 간 유지되며 통상 연 1회 재조사가 실시될 예정
- 한편 현대중공업은 미국 내 생산제품 비중을 높여 반덤핑관세 적용 없이 NAFTA협정으로 인한 무관세로 수출할 예정임.

□ 캐나다, 한국산 탄소 강판에 잠정관세 84% 부과

○ 개요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 오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에서 생산된 탄소 강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에 착수(2012. 5. 14)
- 8월 13일 예비판정에서 한국 포함 7개국에서 생산된 탄소강판에 잠정관세(덤핑 최종판정 전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에는 84%의 잠정관세를 부과

○ 우리 기업 피해 사례

- 캐나다에 해당 제품을 수출 중인 기업 중 현대하이스코는 전체 수출량 중 對캐나다 수출 비중이 낮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밝힘.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서는 2012년 상반기 한국산 강관 수출량 중 對캐나다 수출량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도 크지 않을 전망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제품보다는 미국과 멕시코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캐나다 관세청은 현재 수입액 기준 2위인 중국산 제품에 179%의 반덤핑관세와 톤당 5280위안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NAFTA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과 멕시코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

중남미지역

□ 멕시코, 철강제품 관세 3% 재적용

○ 개요

- 멕시코는 금년 1월부터 FTA 미 체결국에 대해서도 기존 3~7%(HS코드 기준) 관세를 무관세로 전환하였으나, 지난 8월 1일부터 286개 철강 품목에 대한 3% 관세 재적용으로 한국 철강제품의 대 멕시코 수출경쟁력 약화
- * 멕시코 철강산업협회의 강한 반발과 압력에 따른 것으로 파악

○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사례

- 관세 재적용으로 인해 멕시코에 제품을 공급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관련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약화(특히 비자동차용 강판)로 현지 거래선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 자동차·가전용 강판은 멕시코 산업장려 차원에서 적용되는 특혜관세 제도가 있으나, 요구서류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음.
- 또한, 현대제철사는 미국을 통해 멕시코 바이어에게 형강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관세 재적용으로 기존 바이어 관리에 어려움 예상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조치는 FTA 체결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쟁국 철강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이번 관세 재부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나, 멕시코 경제부 의견(관세결정은 정부권한)과 이견이 있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함.

□ 브라질, 컴퓨터 부품 수입관세 인상

○ 개요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는 '12년 8월 경제발전 촉진정책 Brasil Maior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일부 핵심부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함.
- 이번 인상 조치로 노트북은 현재 14%에서 20%로, 메모리카드는 0%에서 16%, 인쇄회로는 10%에서 12%로 각각 인상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메모리카드는 한국이 '12년 상반기 3250만 달러로 수입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쇄회로, 노트북 등도 한국이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한국 제품의 브라질시장 수출에 적신호등이 켜짐.

□ 브라질, 수입자동차 대상 공업세(IPI) 인상 적용시기 연장

○ 개요

- '12년 4월 브라질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수입 자동차 대상 공업세(IPI) 인상분 30% 포인트 적용 조치를 '13~'17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을 확정함.

○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 '12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17.09%, 한국 37.54%, 독일 36.41%, 미국 24%, 프랑스 26%, 벨기에 55.98%, 중국 91.1% 각각 감소한 반면, 공업세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 멕시코산 자동차는 동기간 103.85% 증가함.
- 지우마 대통령은 “이 같은 신규 조세법이 자국산업 보호주의가 아니라 국내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어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외부시선은 “지우마 정책은 명백한 보호주의적 조치로, 이에 대처할 구체적 방안을 외국회사가 공동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임.

□ 브라질, 타이어 및 나일론 사 덤핑혐의 조사 착수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12년 상반기 수입이 대폭 증가한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 사 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를 제기하고 7월 사실 여부 조사 시작
- '12년 1-6월 한국산 타이어(HS코드 4011.10)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1.25% 증가, 나일론 사(HS코드 5402.31.19)는 105.6% 증가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브라질의 경우 덤핑 혐의로 조사 중인 품목은 통관지연 등 다수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조사가 종료되고 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분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종이, 가구, 유리 등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결정했으며(9월 26일 부 발효), 10월까지 수입 관세 인상 품목을 200개로 확대할 예정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수입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對 브라질 수출 비중이 큰 타이어, 철강, 석유화학 품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한국산 주요 제품 관세 인상 현황 >

(단위 : US\$ 백만)

HS Code	품 목	관세(%)		2011년 수출액
		기 존	변 경	
3901.10-1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14	20	23.554
4011.10-00	승용차용 타이어	16	25	53.081
4011.20-90	버스용 및 화물차용 타이어	16	25	101.200
7208.51-00	철강-두께 10mm 초과	12	25	45.977

□ 아르헨티나, 대한국산 반덤핑 규제

○ 개요

- '12년 8월 7일 기준 아르헨티나 관세청(CNCE)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83개의 확정된 반덤핑 규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한국도 2건이 포함되어 있음.

<아르헨티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냉연강판	7209.15-18, 25-28, 90, 7211.23, 7225.50, 7226.92	반덤핑	'01.07.18	반덤핑 : '03.01.08	- 관세율: 60.46% - 규제기간: 행정령 242로 인해 현재 덤핑 재조사에 들어감. 재조사기간 동안 수입규제 적용. 2010년 7월 6일부터 2012.8월7일 현재까지 반덤핑 규제 연장 여부 재검토 중.
아연강판	7210.49, 61, 7212.30, 50, 7225.92,99, 7226.94,99	반덤핑	'02.05.29	반덤핑 : '03.05.23	- 관세율: 최소가를 규정함. - 한국산 US\$ 243/톤 - 규제기간: 연장('09.11.20 → 12.11.19)

자료: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주: 2012년 8월 7일 기준

○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사례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은 '12년 4월 23일 부로 행정 39/2012를 관보에 게재하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동 품목은 '11년 기준 대 아르헨티나 1위 수출국은 한국,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으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사전수입신고제

○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12년 1월 10일 발표한 행정령 제 3252호에 '12년 2월 1일부로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 제도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도입을 공고
- 동 제도에 따르면, 모든 품목에 대해 아르헨티나로 수입하기 전에 모든 수입자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 사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각 관련 기관들이 검토하여 승인을 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됨.
- 동 사전수입신고제 시행 이후 한국산의 수입은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현지생산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우리기업 피해 발생 사례

- '11년도에 약 7백만 달러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을 하던 셋톱박스 수출업체인 A社에서는 사전수입신고제(DJAI) 실시 이후 신규오더가 전무한 상황임.
- 유압해머 수출업체인 P사도 또한 사전수입신고제(DJAI) 실시 이후 아르헨티나 기존 바이어인 T사로부터 추가 오더 없는 상황임.
- 수년간 한국의 C사 및 T사의 사무용의자를 수입해온 아르헨티나의 O社는 사무용의자의 일부 부속품이 현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제(DJAI) 승인을 거부당해 올해 수입이 전무한 상황임.

□ 아르헨티나,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 개요

- '11년 3월에 공표되어 4월 부로 시행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확대로 약 200개 품목이 수입허가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584개로 늘어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제품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사례

-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제품도 수입을 하고 있는 수출입업체인 Dechin사에 따르면 사전수입신고제(DJAI) 시행 이후 대상 품목 중복으로 그 효력이 미비했던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가 최근 다시 수입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강화로 인해 현지 유리제품 수입업체인 T사는 동 품목의 경우 사전수입신고(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통한 승인과 더불어 사전수입허가(LNA, Licencia No Automatica)까지 필요하여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경우 사전수입허가(LNA)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180일 안에 모든 수입에 관한 처리해야 하나, 사전수입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는 60일 안에 모든 수입 관련 절차 완료를 요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한국에서의 수입은 더욱 어려워져서 현재 당분간 수입을 포기한 상태라고 전함.

□ 아르헨티나 수입쿼터제

○ 개요

- '11년 3월 11일에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산업부 조르지(Giorgi) 장관은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수입업체에 수입규모 만큼 수출을 할 것을 요청했고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에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584개로의 확대 적용 방침 발표함.

○ 우리기업 피해 발생 사례

- 한국으로부터 트럭용 타이어를 수입하는 D사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한 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쿼터 충당을 위해 현지 레몬 수출업체의 수입쿼터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었으나, 아르헨티나의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도 아르헨티나 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동 레몬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함.

□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 개요

- 해외 송금 관련 2012년부터는 T/T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해 수입제품에 대한 선지불이 불가능해졌으며 현지 바이어가 사전수입신고(DJAI) 승인 뿐 아니라 B/L 및 C/O 서류를 받은 후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을 시에만 송금이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음.
- L/C 거래의 경우는 L/C 구매를 위한 달러 구매 이후에 실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달러 구매 및 송금 승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선금을 지불받고 자재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르헨티나 바이어들과 거래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임.
- 또한 수입규제 극복을 위한 현지 직접투자 및 생산 역시 수익에 대한 본국의 달러송금 역시 외환규제로 불가능하여 동 상황이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아시아·대양주

□ 말레이시아, 와이어로드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개요

-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Amstell Mills에서 한국, 중국,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 6월 25일부터 조사 개시
- 이번 제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탄소 와이어로드의 현지시장 진출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산 와이어로드 제품은 포스코가 생산하고 우리기업 S사가 말레이시아로 수입하여 현지진출 우리기업 K사에 납품하고 있는 물량으로 판단됨.
- 포스코 와이어로드의 가격 수준은 일본 제품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지 업체가 생산한 와이어로드보다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 호주, 한국산 PVC수지(3904.10)에 잠정관세 5.4% 부과

○ 개요

- 호주 관세청은 지난 '12년 4월 23일, 호주 PVC 유일 생산 업체인 Australian Vinyls Corporation Pty Ltd사에서 제기한 한국산 PVC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전달 받음
- 이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PVC 제품에 긍정 예비판정을 내리고 5.4%의 잠정관세를 부과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1년 PVC수지에 대한 한국의 대호주 수출액은 총 2600만불로, '12년 1월부터 7월까지 400만 달러의 수출액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1.7% 하락한 수치임.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지난 6월 100만불의 수출이 전부이며, 잠정관세 부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호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호주, 한국산 열연 코일(7208.51,7208.52)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개요

- 호주 관세청은 지난 '12년 6월 15일, 호주 BlueScope Steel사가 제기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열연 스틸 코일 품목에 대한 덤핑수입 문제를 조사하기로 발표
- BlueScope Steel사는 호주 내 유일 열연 스틸 코일 제조업체로, 해당 품목이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됨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줄어들고 호주 달러 강세와 높은 임금으로 인해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 위기를 맞고 있는 호주가 보호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11년 열연코일에 대한 한국의 대호주 수출액은 HS Code 7208.51 & 7208.52 각각 3000만 달러와 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1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2.2%, 50.5% 상승하는 등 철강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인도네시아,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 단행

○ 개요

- 인도네시아정부는 7월 18일 은행 지분 소유를 금융기관 40%, 비금융기관 30% 및 개인 20%로 제한
- 지분이 40%를 넘는 기존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재정건전성 기준과 지배구조 순위에 부합할 경우 기존 지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 중앙은행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2018년까지 기존 주식을 처분해야 함.

○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사례

-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동 규제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없음.
- 최근 한국 S은행에서 인도네시아 중소형 은행을 인수코자 하였으나 중앙은행의 거부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업계는 보고 있음.

○ 우리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진입 예정인 한국계 은행의 과반수 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과반수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면, 비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불확실

□ 인도, 페놀 반덤핑 관세 폐지 지연

○ 개요

- '08년 1월, 인도 정부는 한국산 페놀(Phenol)에 대해 1차 반덤핑 관세를 내려 US\$ 196/MT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함.
- 2차 조사 결과로 반덤핑 관세를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 '12년 3월에 폐지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폐지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황

○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사례

- 인도의 한국 페놀 제품 수입액은 '07년 874만 달러로 페놀 제품 수입 대상국가 6위에 해당하였으나 '08년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인도의 한국 페놀 제품 수입액이 '08년 33만 달러, '09년 1만 달러로 크게 하락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페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폐지 권고까지 하였으나 인도 정부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폐지 조치가 없어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정부의 조속한 폐지 공지가 필요

□ 인도, PVC 서스펜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 판정

- 인도 정부는 '07년 12월 PVC 서스펜션(Poly Vinyl Chloride - Suspension Grade)에 대해 한화케미컬과 LG케미컬을 제외한 한국기업에 반덤핑 판정
 - '12년 2월 10일 인도 정부에서는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여부를 재공지하였으나 기존 조사 내용과 다른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07년 12월 26일 발표된 조사 결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두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PVC 서스펜션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우리 기업들이 인도의 PVC 서스펜션 시장 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
 - LG케미컬과 한화케미컬도 인도 정부에서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여부를 결정할 시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크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 인도, 무스프탈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 인도 정부는 '09년 5월 시행된 무스프탈산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12년 5월 2차 조사 시 '13년 1월까지 연장
 - 무스프탈산(Phthalic Anhydride)은 '09년도 29%의 긴급수입관세 부과 후 현재 2013년까지 10% 긴급수입관세가 부과된 상태임.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인도는 무스프탈산과 옥소 알코올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13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이프가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 제품에 대한 인도시장 진입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

□ 파키스탄, Formic Acid 반덤핑 관세 부과

○ 개요

- '11년 2월 한국과 중국산 Formic Acid (가죽, 제약산업 등에 널리 쓰이는 원료)에 대한 덤핑제소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12년 2월 한국산에 대해 44.1%의 덤핑관세가 부과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Formic Acid 원료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로 수출원가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저하

중동·아프리카·CIS

□ 터키,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및 신규조사 착수

○ 개요

- 최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HS 코드: 5503.20)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의 연장을 확정, 공시함.

<對 한국 신규 반덤핑 관세부과 현황 (2012년 8월 현재)>

품목	HS코드	최종판정	부과내역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503.20	2012.05.16	6.2%

* 자료 : 터키 경제부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터키 내 우리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시킨 결과이기는 하나,
- 한-터키 FTA 체결로 인하여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품목 수 및 시행내용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 세이프가드(SG) 연장 및 강화 조치

○ 개요

- 터키는 對 한국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세계 1위 국가임.
-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들을 연장 및 강화하여, 한국에는 현재 12개 품목 (HS 코드 4단위 기준)에 대하여 부과 중에 있음.

<對 한국 세이프가드 신규 조치 현황 (2012년 8월 현재)>

품목	HS코드	부과내역		
		1차	2차	3차
성냥	3605	1\$/netkg max..3.10 \$/kg 6/6/2012-5/6/2013	0.95\$/netkg max..3.05 \$/kg (6/6/2013-5/6/2014)	0.90\$/netkg max..3\$/kg (6/6/2014-5/6/2015)
PET	3907.60.20	8 CIF %	7,5 CIF%	7 CIF %

자료 : 터키 경제부

□ 요르단 중고자동차 수입관련 연식 제한

○ 개요

- 요르단 정부는 '12년 7월 1일부로 기존 연식제한이 없던 중고자동차 수입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함.
- 7월 1일 이전에 오더를 진행한 L/C사본, 오더인보이스 및 T/T결제 증빙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건별로 확인해 수입여부를 판단할 예정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요르단은 지난 4년간 한국 중고자동차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금번 조치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함과 동시에 중고자동차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고차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신차에 대한 수요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란 수입품에 대한 수입 L/C 개설 제한

○ 개요

- 7월말 이란정부는 수입품을 우선수입품목군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누어, 우선 수입품목군인 1~2등급 품목군만 수입 L/C 개설 허용
- 1~2등급 품목군은 식품류 및 의약품 위주로, 기타 품목군의 경우 L/C 개설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실정임. 3~5등급 품목군은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수입 L/C 개설 가능
- 따라서 수입 L/C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중 환전소를 통해 외환을 구입하여 T/T 송금을 통한 환전만 가능한 상태임.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이란 수출은 대부분 3등급 이하의 제품군에 속하고 있어, 그동안 이란 수출 시 많이 활용했던 원화L/C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해서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카타르 수입통관 서류심사 강화

- 카타르 세관은 '11년 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
-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근 한국산 건축자재 수입업체가 원본 C/O를 제출하지 못해 수입물품이 세관에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해 우리 대사관이 카타르 세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처리하였으나, 관세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 오만 In Country Value 도입으로 인한 국산제품 소비확대 추진

- 개요
 - '12년 하반기부터 오만석유개발사와 오만정유석유산업사 등 석유가스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등을 도입, 향후 프로젝트 입찰시 평가에 반영 계획
 - 오일가스 부문 각종 입찰에서 앞으로는 오만 제품/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ICV는 '12년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오일가스 부문에서 ICV가 정착되면 이후 오만정부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나,
 -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오만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산품 및 건설자재(파이프, 전선, 기계 등)는 품목과 수량이 아직 많지 않아, 단기간 내에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남아공 정부, 한국통신의 Telkom 지분인수 거부

○ 개요

- 지난 5월 남아공 통신부 장관은 한국통신(KT)이 추진하고 있는 남아공 국영 종합통신사업자 텔콤(Telkom) 지분 20% 인수를 반대한다고 발표
- 남아공 정부는 Telkom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임.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통신의 남아공 통신공사(Telkom) 주식 인수를 통해 남아공시장에 진입해 아프리카 ICT 시장진출 전기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 정부여당과 정부여당의 주지지층인 통신노조의 재 국영화 검토로 한국 통신의 주식인수 협상은 복잡한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러 의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법안 상정

○ 개요

- 러시아정부는 수입되는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을 사전에 세금으로 징수하고,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게는 폐차처리 관련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사용세(Utilization fee)'법안을 '12.9.1일부로 발효할 예정
- 동 법안은 WTO 가입 이후, 관세인하로 경쟁력이 약화될 자국 자동차메이커. 특히 중고차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대형트럭(8톤이상), 버스분야에서 자국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 승용차는 24.5만루블(\$600-1500), 화물차의 경우 1540만루블(\$5,000-13,30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향후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 대러 주력 수출품중의 하나인 상용차 수출에 큰 장애로 작용

* 2.5~3.5톤 신형 상용차 수출시 약 \$5,546의 사용세가 부과되어 대러 수출품 4위의 상용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 퍼스널 컴퓨터 관세 인상 논의

○ 개요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PC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PC(모노블럭 포함)의 수입관세를 WTO 가입 1차년도 10%, 2차년도 6.6%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러한 논의는 외국기업을 투자유치해 현지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함.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지난해 러시아의 수입 PC는 1200만 대로 노트북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데스크톱 PC의 비중은 전체 수입 PC 대비 28% 정도로 축소되었고 자국산 조립 PC 생산도 10-20% 정도 감소하였음.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4
12-002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2012.4
12-003	일본의 新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2012.4
12-004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파워 엘리트 100인	2012.4
12-005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2012.4
12-006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2012.5
12-007	프랑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및 동향	2012.5
12-008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 - 자동차부품	2012.5
12-009	쿠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쿠바 협력 방안	2012.5
12-010	CIS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2012.6
12-011	방글라데시 소매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2.6
12-012	유럽 재정위기 2년, 주요국 변화 동향	2012.6
12-013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2012.6
12-014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2012.6
12-015	2012 3/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6
12-016	한미 FTA 100일, 중기 수혜품목과 성공사례	2012.6
12-017	최근 콜롬비아 주요 경제이슈와 한-콜 FTA 활용 방안	2012.6
12-018	한·터키 FTA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7
12-019	호주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2.7
12-020	수교 50주년 한-뉴 경제관계변화와 협력방안	2012.7
12-021	미국 항공산업 진출 전략	2012.7
12-022	한-EU FTA 1주년, 주요국별 성과 분석 및 유망품목	2012.7
12-023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	2012.7
12-024	호주 온라인 쇼핑몰 진출 방안	2012.7
12-025	뜨거워지는 일본 태양광 시장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	2012.7
12-026	일본의 비관세 장벽 현황	2012.7
12-02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플랜지)	2012.8

12-028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혈압측정기)	2012.8
12-02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자동차브레이크패드)	2012.8
12-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공구절삭기)	2012.8
12-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금고)	2012.8
12-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디지털 도어락)	2012.8
12-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위성방송수신기)	2012.8
12-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의료 보호대)	2012.8
12-03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인쇄기계)	2012.8
12-03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자동차 배터리)	2012.8
12-03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전기용접기)	2012.8
12-038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콘택트렌즈)	2012.8
12-03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태양광 모듈)	2012.8
12-04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피부미용기기)	2012.8
12-04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CCTV)	2012.8
12-042	동남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상) - 아세안5편 -	2012.8
12-043	동남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하) - CLM 편 -	2012.8
12-044	불황을 뚫은 세계시장 대박상품	2012.8
12-045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화장품)	2012.8
12-046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합성수지.고무)	2012.8
12-047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밸브, 기타기계류)	2012.8
12-048	2012 인도진출 리스크와 대응	2012.8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Made In China 에서 Made WITH China로	2012.6
12-002	중국 소비자, 찾는 제품 따로 있다	2012.6
12-003	중국 내륙, 뉴 프런티어를 주목한다	2012.7
12-004	광동성 환경보호 산업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의 효과적 진출방안	2012.8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	-----	------

12-001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2012.1
12-00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품목	2012.1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2012.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4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 2006 ~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	2012.1
12-00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2012.1
12-003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1
12-004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2.1
12-005	한국 투자가이드	2012.1
12-006	Doing Business in Korea	2012.1
12-007	韓國投資指南	2012.1
12-008	韓國投資ガイド	2012.1
12-009	FDI 및 초국적기업 운영 통계에 대한 UNCTAD 훈련 교본 (UNCTAD Training Manual on Statistics for FDI and the Operation of TNCs)	2012.2
12-010	20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2.3
12-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2012.3
12-012	韓-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2012.3
12-013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2년 개정증보판)	2012.4
12-014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2012.3

12-0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2012.4
12-016	Inward FDI 통계 수집 법제화 벤치마킹 조사	2012.5
12-017	IT 기업 일본 시장 진출 내비게이터(Q&A 집)	2012.5
12-018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5
12-019	블랙 다이아몬드를 잡아라 : 아프리카 주요국 유망상품 진출전략	2012.6
12-020	세계로 미래로 달려라! 중기기관차 - 우리 중소기업의 좌충우돌 해외진출 story	2012.6
12-021	'11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2.6
12-022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마케팅 가이드	2012.6
12-023	한-미안마 경제협력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2.6
12-024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	2012.7
12-025	모바일산업 해외시장 동향조사	2012.7
12-026	Global Green Hub Korea 2012 결과보고서	2012.7
12-027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요약번역본	2012.7
12-028	「2011 Fortune Global 500」 기업의 한국 투자진출현황 분석	2012.7
12-029	50주년 기념사업 종합결과 보고서	2012.7
12-030	Green Report 15호	2012.5
12-031	한미 FTA 활용 자동차부품 대미 진출확대 방안	2012.7
12-035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2012.8
12-036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2.8
12-037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2.8
12-038	강대리의 링크드인 수출마케팅 따라잡기	2012.8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2.1
12-002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2.1
12-003	2012년 중국-중남미 포럼	2012.1
12-004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2012.1
12-005	2012 러시아 포럼	2012.1
12-006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2012.2
12-007	한-미 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2012.2
12-008	위기 속의 유럽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2012.2

12-009	떠오르는 희망,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2012.2
12-010	한-CIS 비즈니스 포럼	2012.3
12-011	한-미 FTA 활용,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3
12-012	Global Energy Plaza 2012 세미나	2012.5
12-013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2012.4
12-014	한국투자환경설명회	2012.4
12-015	[한중수교 20주년]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2012.4
12-016	2012 글로벌 공항/철도기자재 조달플라자	2012.4
12-017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2012.5
12-018	글로벌인재사업 심포지엄 2012	2012.5
12-01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2012.5
12-020	온라인 유통시장 100배 활용하기 설명회	2012.6
12-021	한미 FTA 대응 미국 지재권 전략 설명회	2012.5
12-022	한-아프리카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2.6
12-023	제9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2012.6
12-024	『P300프로젝트』 지원사항 안내 2012	2012.6
12-025	한국무역 50년, KOTRA 50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2012.6
12-026	국제개발은행(MDB) 조달 설명회	2012.6
12-027	- 한-EU FTA 발효 1주년 'Europe Business Week' - 유럽 대형유통망 진출 전략 설명회	2012.6
12-028	이란 대체시장 발굴 설명회	2012.7
12-029	한-중앙아 투자 포럼	2012.7
12-030	중국 ESCO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2012.7
12-031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설명회	2012.7
12-032	Europe M&A Plaza 2012	2012.6
12-033	라오스 투자환경 설명회	2012.7
12-034	수출활로 개척 포럼	2012.7
12-035	미얀마 新투자제도 설명회	2012.8
12-036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경제 어디로 가나	2012.8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